

‘진도~제주 취항 1년’ 산타모니카호 탑승객 20만명 돌파

매일 1회 추자도 경유편 운항 섬 주민들 ‘호응’ 현혈자 운임 할인·승선 인증 경품 이벤트 실시

진도~제주 취항 1주년을 맞은 페속카페리 산타모니카호의 운영사인 씨월드고속훼리(주)가 탑승객 20만명 돌파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8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7일 운항을 시작한 산타모니카호는 하루 2회 진도~제주 구간을 왕복 운항하며 1년 동안 20만여 명의 관광객과 3만 8000여대의 차량을 수송

했다.
진도군 관광 활성화와 해상 교통권 확대는 물론 매일 1회 추자도 경유편을 운항해 교통 환경이 열악한 섬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씨월드고속은 취항 1주년을 기념해 현혈자 운임 할인, 승선 인증 경품 이벤트, 제주바다 플로깅, 단체고객 현수막 제작, 즉석 참여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산타모니카호는 승객 606명과 차량 86대 선적이 가능한 3500t 규모의 초쾌속 카페리 선박으로, 1시간 30분 만에 진도와 제주를 연결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취항 1주년을 맞은 산타모니카호는 제주와 전남 서남부권을 연결하는 해상관광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진도군 관광 활성화와 해상 교통권 확대에 노력해 온 씨월드고속훼리 관계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장흥군, 벼 모판 관주처리 현장연사회 개최

안양면 비동정미소 육묘장서 개최...100여 명 참석



장흥군은 3일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 관주처리 현장연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연사회는 안양면 비동정미소 육묘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시범사업농가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모판 관주처리는 이앙 1~3일 전 모판에 살충제와 살균·충제, 작물활성제를 혼용한 후 물 뿌리개를 이용하여 육묘상자당 약 300ml를 살포(모상자 20 ~ 30개/10a)하여 분담에서 병해충 방제 횡수를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는 신기술 농법이다.

모판 관주처리 기술은 병해충 방제시간을 95% 절감하고 쌀 생산량을 8%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모판 관주처리 약효 지속 기간은 90일 정도로, 조생종은 병해충 방제를 생략할수 있으며 생육기간이 긴 중만생종 벼는 출수기 전후 추가적인 방제가 1회 정도만 필요하다.

연사회에 참석한 지경용 농가는 “모판관주처리 연사회를 통해 직접 올바른 처리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매년 이상 기상과 돌발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모판 관주처리로 방제 효과를 높여 고품질 쌀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연탄불고기로 강진의 맛과 음악에 취하다

지역소멸 면단위 살리기 프로젝트...병영시장서 매주 금요일 개최

맛의 1번지 전남 강진군이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활력 넘치는 축제의 고장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일환으로, 오는 26일부터 ‘불금불과’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강진군에 따르면 26일 첫 개장을 시작으로 병영시장 일원에서 10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불금불과(불타는 금요일에 불고기 파티) 축제가 열린다.

축제장에서는 연탄돼지불고기와 국수, 한정식 등을 맛볼 수 있으며, 신나는 EDM 디제잉 쇼부터 7080, 8090, 2000년대, 최신곡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도 만날 수 있다.

또 강진군이 자체 개발한 핫템 ‘하멜맥주’와 ‘하멜커피’와 병영막걸리, 사또주, 쌀귀리 등 지역 대표 먹거리도 구입할 수 있다. 축제 현장의 재밌는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 올리면 프리미엄호프쌀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기획 중이다.

불금불과는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



토요일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광주광역시청 기준으로 축제 현장까지 승용차로 1시간 10분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퇴근 후 방문해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가 충분히 가능하다.
또 강진에서 1박을 할 경우 이튿날 강진읍 오감통 음악 공연이나 마량농도수산시장까지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어 직장인 워크숍이나 이색 회식, 대학생·주부 모임, 가족 단위 관광객 모두에게 최적화된 관광 상품이다.

강진=김영일기자

완도군, 가뭄에 고마운 단비 ‘제한 급수 해제’

닷새간 평균 222mm 비 내려...1년 2개월 만에 제한 급수 해제키로

완도군은 5월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평균 222mm의 비가 내려 금일, 노화, 보길, 소안 등에 시행되던 제한 급수를 해제하기로 했다.

금일, 노화, 보길, 소안 등은 5월 8일부터, 노화 남도는 5월 9일부터 단계적으로 제한 급수를 해제한다.

5월 7일 오전 9시 기준, 지난 닷새 동안 소안 면에는 285mm, 보길면에는 268.5mm, 노화읍은 243.5mm, 금일읍에는 178.5mm의 비가 내렸다.

닷새간 많은 비가 내리면서 보길 부항제와 생일 용출제의 저수율은 100%, 소안 미라제는 65.7%, 금일 척지제는 34.2%, 금일 용항제는 22.1% 등의 저수율을 기록했다.

현재 완도군 10개 수원지의 저수량은 310만 톤으로 평균 65%에 이르며, 250여 일 정도 쓸 수 있는 물을 확보했다.

한편 지난해 완도군의 누계 강수량은 765mm이며, 평년(1,425mm) 대비 53%로 기

상 관측 이래 최악의 가뭄으로 2022년 3월 10일부터 제한 급수를 실시해왔다.

군은 그동안 가뭄 장기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동식 해수 담수화, 지하수 저류시 설치, 대형 관정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장기적인 대책으로 노화·보길에 해저 관로를 이용한 광역 상수도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일 동백리에 수원지 신설,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에타게 기다리던 단비가 내려 근심을 덜게 됐지만 가뭄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군민들께서는 항상 물을 아껴서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해남군, 2028년까지 마늘 조직배양 우량종구로 대체

해남군이 바이러스 무병묘 조직배양을 통한 씨마늘 생산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마늘 조직배양은 생장점을 채취해 배양하는 방법으로, 생장점에는 바이러스가 없거나 밀도가 낮아 감염률을 낮출수 있어 건강한 우량종구 생산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조직배양을 통해 재배된 마늘은 수량도 증가해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해남군에서는 주로 타지역에서 마늘 종구를 구입해 마늘을 재배해 왔으나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매년 20억원 가량이 마늘 종구 비용으

로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마늘 조직배양 우량종구는 1년 차에 생장점 배양을 통한 소구 생산을 시작으로 계대배양(이식)을 거쳐 대량 증식을 진행하고, 2년 차 통마늘 생산, 3년 차 쪽마늘 생산, 4~5년 차에는 각각 1차 증식, 2차 증식으로 수량을 늘려 나갈 예정이다.

현재 2,000~3,000개의 조직배양 생장점 채취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통마늘 생산을 위해 시험포 재배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